

■ 선우 쌤 총평

2014년 1차 시험은 2013년 경찰 2차에 비해서는 문제 수준은 별로 높지 않았다.

그러나 대부분 수험생들에게 한국사가 가장 어렵게 느껴진 이유는, 문제 대부분이 주요 단어를 바뀌거나 앞뒤 시대 상황을 바뀌어 치사하게 함정을 낸 문제(2번, 3번 7번, 9번, 12번, 18번)가 많았기 때문이다. 특히 경찰 시험에서만 나오는 ‘틀린 것 몇 개’를 고르는 문제 유형(5번, 6번, 8번)은 역사적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암기하지 않은 수험생들에게는 상당히 어렵게 느껴지는 문제 유형이다.

문화사 관련 문제 중 ‘의궤’ 문제는 2008년 지방직 7급에서 이미 기출된 문제였고, 의궤를 모르더라도 공무원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조선왕조실록’에 대한 지식만으로도 정답을 맞출 수 있는 문제였다.

하여간 이번 시험의 경우 1번 선사시대 문제에서부터 수험생들이 상대적으로 어렵게 체감하는 특정 유적지와 유물이 제시되어서 당황하였을 것이고 시험이라는 긴장된 상황에서 사고의 유연성이 떨어지게 되면서 하지 않아도 될 실수를 한 경우가 많았을 것이다.

결국 모든 문제가 그렇지만 특히 이런 유형의 문제는 수험생의 정확한 지식과 철저한 암기가 있어야 확실하게 답이 나올 수 있다.

시대 출제 구성은 전근대사 16문제, 근현대사 4문제, 선사 및 국가 형성 3문제, 정치 11문제, 사회 1문제, 경제 2문제, 문화사 3문제였다.

■ Tip : 선우쌤의 한국사 공부 방법

2014년부터 1차 경찰 시험에서도 한국사가 공통 과목이자, 원점수 과목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경우 한국사를 고득점받아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수록 공부 분량을 무조건 늘리는 것보다는 한국사 전시대에 대한 정확한 흐름 파악과 각 시대의 주요 개념을 정확히 파악하고 반드시 기출문제를 통해 다양한 문제 유형을 파악하는 훈련을 해두어야 합니다.

2014년 경찰 1차 시험 역시 9급·7급 공무원 기출문제에서 다수 출제된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각 해설마다 공무원 기출문제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이번 시험이 여러분의 마지막 시험이 되기를 바라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 용기내어 다시 시작합시다. 한국사의 공부 방향을 바르게 잡고 기출문제에서 다시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꿈이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 2014년 1차 경찰 문제 시대별 분석

역사인식					
선사시대 및 국가 형성	3	· 선사 유적지, · 고조선, · 부여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고대사회	4	· 역사적 사건 순서 · 신라왕호변천 · 발해		· 삼국와 통일신라 경제	
중세사회	3	· 성종의 정책 · 무인정권			· 부석사 무량수전(「동명왕편」) 제시
근세사회	2				· 동국통감 · 의궤
근대사회 태동	4	· 비변사 · 봉당	· 가족 제도 변화	· 양반이후 수취체제 변화	·
근대사회 전개	2	· 대한제국 개혁 · 동학농민운동			
민족독립운동기	1	· 일제의 경제침탈			
현대사회	1	· 이승만의 ‘정읍발언’과 김구의 ‘삼천만 동포에게 읍고함’- 발표 사이 사건			
통합					

1. 다음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선원사 시대 유적이다. 해당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을 연결한 것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부여 송국리 유적 - 비파형동검
- ② 양양 오산리 유적 - 뼈 낚시바늘
- ③ 여주 혼암리 유적 - 오수전
- ④ 부산 동삼동 유적 - 빗살무늬토기

☞ 답 ③

<오답연구> 여주 혼암리 유적지는 청동기 유적지이다. 오수전은 철기시대 유적지와 백제에서 출토되었다.

■ 기출 Tip : 2008년 지방직 9급, 2012년 국가직 7급 문제 등

2. 다음 고조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위만은 고조선으로 들어올 때 상투를 들고 오랑캐의 옷을 입었다.
- ② 『동국통감』의 기록에 의하면 단군왕검이 고조선을 건국하였다.
- ③ 기원전 194년 위만은 우거왕을 몰아내고 스스로 왕이 되었다.
- ④ 위만조선은 한의 침략에 맞서 1차 겹전(패수)에서 대승을 거두기도 했다

☞ 답 ③

<오답연구> ③ 위만은 기원전 194년에 고조선 준왕의 왕위를 빼앗았다. 위만의 손자인 우거왕은 한 무제에 의해 멸망하였다.
cf. 위만조선은 고조선 입국시 머리에 상투를 틀고 조선인의 옷을 입었다. 중국 사서에서는 위만이 호복(오랑캐옷)을 입었다고 하는데 오랑캐옷이란 중국입장에서 본 조선인의 복장을 의미한다.
■ 기출 Tip : 2009년 국가직 7급, 2010년 법원직, 2009년 경찰 2차 등 다수

■ 2014년 대비 국가직 대비 선우한국사 3월 동행모의고사 1회 3번 문제 유사 적용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원봉 3년 여름, 니계상 참이 사람을 시켜 우거왕을 죽이고 항복해왔지만, 왕검성은 함락되지 않았다. 죽은 우거왕의 대신 성기가 한나라에 저항하였다. …… 성기가 주살당하니, 이로써 마침내 (가) 을/를 평정하고 4군을 세웠다.

<보기>

- ㄱ. 천군이 다스리는 소도라는 신성한 지역이 있었다.
- ㄴ. 중국에서 철기 문화를 본격적으로 수용하였다.
- ㄷ. 남의 물건을 훔쳤을 때는 12배로 갚는 법이 있었다.
- ㄹ. 성장 과정에서 진번·임둔 등을 복속하였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ㄴ, ㄷ ④ ㄷ, ㄹ

3. 다음의 자료에 제시된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 나라는 구릉과 넓은 못이 많아 동이 지역 가운데 가장 넓고 평탄한 곳이다. 토질은 옅을을 가꾸기에 알맞지만, 과일은 생산되지 않는다. 왕이 죽으면 순장을 하는데 많을 때는 백 명을 헤아린다. 수해나 한해를 입어 곡식이 잘 익지 않으면 그 책임을 왕에게 묻기도 하였다.

- 『삼국지』 「위서 동이전」 -

- ① 이미 1세기 초에 왕호를 사용하였다.
- ② 만주 길림시 일대를 중심으로 송화강 유역의 평야 지대에서 성장하였다.
- ③ 가(加)들은 저마다 따로 행정 구획인 사출도를 다스렸다.
- ④ 3세기 말 읍루족의 침략을 받아 크게 쇠퇴하였고 결국 고구려에 편입되었다.

☞ 답 ④

제시문의 나라는 부여이다.

<오답연구> ④부여는 3세기 말 선비족의 침략을 받아 크게 쇠퇴하였고 결국 494년 고구려 문자(명)왕때 고구려에 편입되었다

■ 기출 Tip : 공무원 기출문제 다수, 2013년 수능(EBS 선우한국사 기출문제집 p63)

4. 다음 역사적 사건이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된 것은?

- ㉠ 신라 진흥왕은 북한산을 순행하고 순수비를 세웠다.
- ㉡ 백제 성왕은 수도를 사비로 옮기고 신라와 연합하였다.
- ㉢ 고구려 장수왕은 죽령 일대부터 남양만을 연결하는 선까지 판도를 넓혔다.
- ㉣ 금관가야가 신라에 병합되었다.
- ㉤ 대가야가 신라에 병합되었다.

- ① ㉢→㉤→㉠→㉡→㉣
- ② ㉢→㉤→㉡→㉠→㉣
- ③ ㉤→㉢→㉡→㉣→㉠
- ④ ㉢→㉤→㉡→㉣→㉠

☞ 답 ②

② ㉢ 5세기 고구려 장수왕 → ㉤ 6세기 신라 법흥왕(532) → ㉡ 6세기 백제 성왕(538) → ㉠ 6세기 신라 진흥왕(555) → ㉣ 6세기 신라 진흥왕(562)

■ 기출 Tip : 2013년 국가직 9급 등, 2013년 수능(EBS 선우한국사 기출문제집 p 91. 9번문제)

5. 다음 중 신라 왕호와 그 역사적 의미가 바르게 연결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 거서간·차차웅 - 정치적 군장과 제사장의 기능 분리
- ㉡ 이사금 - 연장자의 의미로, 박·석·김 3부족이 연맹하여 교대로 왕을 선출
- ㉢ 마립간 - 김씨가 왕위 계승권을 독점하면서 왕권 강화
- ㉣ 왕 - 지증왕이 처음 사용하였고, 중국식 정치 제도를 받아들이기 시작

- ① ㉠, ㉢
- ② ㉠, ㉡, ㉣
- ③ ㉠, ㉢, ㉣
- ④ ㉠, ㉡, ㉢, ㉣

☞ 답 ④

■ 신라의 발전과 왕호 변천

신라에서는 왕의 칭호가 거서간, 차차웅, 이사금, 마립간, 왕 등으로 여러 차례 바뀌었는데 이런 변화는 신라의 발전 과정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즉, 정치적 군장과 제사장의 기능이 분리되면서 거서간과 차차웅으로 그 칭호가 나누어지게 되었고, 박·석·김의 3부족이 연맹하여 그 연맹장을 3부족에서 교대로 선출하게 될 때에 연맹장이란 의미에서 이사금을 선출하였다. 이후 김씨가 왕위 계승권을 독점하게 되면서 그 왕권의 강화를 표시하기 위해 대수장이란 의미의 마립간으로 바뀌었다. 그 뒤 왕위의 부자 상속제를 확립하고, 이어 6부를 개편하여 중앙 집권화를 추진하면서 마립간 대신 왕이란 칭호를 사용하게 되었다.

(EBS 선우한국사 이론편 p 92내용)

☞답 ①

제시문은 고려 무신정권때 저술한 이규보의 「동명왕편」으로
부석사 무량수전이 고려 후기 대표적인 목조건물이다.

<오답연구> ② 5세기 고구려 장수왕, ③ 백제 한성시대 교본
④ 조선 후기 17세기 현존 최고의 목조 5층탑

■ 기출 Tip : 2012년 경찰간부, 2010년 국가직 7급 등 다수

11. 다음 밑줄 친 '이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김익희가 상소하여 말하기를, “요즘 이 기구가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모두 취급합니다. 의정부는 한갓 겉이름만 지니고 육조는 할 일을 모두 빼앗기고 맡았습니다. 이름은 '변방을 담당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과거에 대한 판정이나 비빈 간택까지도 모두 여기서 합니다.” 라고 하였다.

- ① 명종 때에 을묘왜변을 계기로 처음 만들어진 임시 회의 기구이다.
- ② 세도정치기에도 핵심적인 정치 기구로 자리 잡았다.
- ③ 의정부의 의정과, 공조판서를 제외한 판서 등 주요 관직자가 참여하는 합좌기관이다.
- ④ 고종 때에 흥선대원군에 의해 사실상 폐지되었다.

☞답 ①

제시문의 정치 기구는 비변사이다.

<오답연구> ① 비변사는 종종때 삼포왜란을 계기로 처음 설치되었고, 명종 때에 을묘왜변을 계기로 상설기구화되고, 선조때 임진왜란을 계기로 국가 최고기구가 되었다.

■ 기출 Tip : 2009년서울시 9급, 2013년 군무원 등 다수

■ 사료 : EBS선우한국사 이론편 p491 비변사 설치 및 기능 강화

■ 2014년 대비 국가직 대비 선우한국사 3월 동형모의고사 9회 10번 문제 유사 적중

밑줄 친 '이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 기구는 중앙과 지방의 중대한 일을 모두 관장하였다.……도제조(都提調)는 전직과 현직 정승이 겸임하였다. 제조는 재신으로 변경의 사정에 정통한 자가 겸임하였는데, 이·호·예·병·형조 판서, 양국 대장, 양도 유수, 대제학은 직위에 따라 당연히 겸직한다. 4명은 유사당상이라 부르고 8명은 팔도 구관당상을 겸임한다.

<보기>

- ㄱ. 집권 봉당이 그 고위직을 독점하고 정치를 주도하였다.
- ㄴ. 임진왜란 이후 구성원이 확대되고 기능이 강화되었다.
- ㄷ. 권력이 소수 가문에 집중되면서 점차 기능이 약화되었다.
- ㄹ. 대원군 집정기에 군사와 정치를 분리하기 위해 다시 설치되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12. 다음은 조선시대 봉당에 대한 설명이다. ㉠-㉣에 대한 내용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람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는 후, 동인이 우세한 가운데 정국이 운영되었다. 동인은 ㉡온건파인 남인과 급진파인 북인으로 나뉘었다. 그 후, ㉢서인과 남인이 격렬하게 대립하였으며, 나중에는 서인에서 갈라져 나온 ㉣노론과 소론이 치열하게 경쟁하였다.

- ㉠ ㉠ - 척신 정치의 잔재 청산 문제에서 주로 소극적인 부류가 서인, 적극적인 부류가 동인으로 형성되었다.
- ㉡ ㉡ - 정여립 모반 사건 등을 계기로 나뉘어져 처음에는 남인이 정국을 주도하였으나 임진왜란 이후 북인이 집권하였다.
- ㉢ ㉢ - 예송논쟁에서 나타난 예론의 차이는 신권을 강화하려는 서인과 왕권을 강화하려는 남인 사이의 정치적 입장과 연결되었다.
- ㉣ ㉣ - 노론은 실리를 중시하고 북방개척을 주장하는 경향을 보이며, 소론은 대의명분을 중시하고 민생안정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였다.

☞답 ④

<오답연구> ④ ㉣ - 소론은 실리를 중시하고 북방개척을 주장하는 경향을 보이며, 노론은 대의명분을 중시하고 민생안정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였다.

■ 기출 Tip : 2010년 서울시 9급, 한국사 점정 3회 고급 등 다수

■ 2014년 국가직 대비 선우한국사 3월 동형 모의고사 6회 14번 유사 적중

다음 (가)~(라)와 관련된 탐구 주제와 관련 봉당이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사람의 갈등이 심해지면서 기성 사람을 중심으로 한 (가)와/과 신진 사람을 중심으로 한 동인으로 분열되었다. 동인은 정여립 모반사건을 계기로 온건파인 (나)와/과 급진파인 (다)(으)로 나뉘었으며, 그뒤 (가)은/는 송시열을 중심으로 한 (라)와/과 윤증을 중심으로 한 (마)(으)로 다시 나뉘어졌다.

탐구 주제

봉당

- ① 예송의 전개 과정과 정치적 영향 (가), (나)
- ② 인조반정 전후 외교 정책의 변화 (가), (다)
- ③ 성리학을 탈피한 다양한 사상의 모색 (나), (마)
- ④ 호락 논쟁의 전개와 사상적 의의 (다), (라)

13. 다음은 조선시대 양·난 이후 수취 제제의 변화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영정법에서는 연분 9등법을 따르지 않고 풍흉에 관계없이 전세를 토지 1결당 미곡 4두로 고정시켰다.
- ② 대동법의 시행으로 공납이 전세화되어 농민은 대체로 토지 1결당 미곡 12두만 납부하면 되었다.
- ③ 영정법에 따라 전세의 비율이 이전보다 다소 낮아져 대다수 농민의 부담이 경감되었다.
- ④ 대동법은 부족한 국가 재정을 보완하고 농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개혁론으로 제기되었다.

☞답 ③

<오답연구> ③ 조선후기는 소수의 지주와 다수의 소작농으로 구성된 전주전호제 사회가 확대된 사회이다. 조선 후기 전세는 영정법의 변화로 전세 자체는 4두로 줄었으나, 농민 대부분이 소작농(전호)였기에 영정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였다.

■ 기출 Tip : 2004 서울시 교행 9급 등 다수

■ 2014 국가직 대비 선우한국사 3월 동형모의고사

7회 16번 유사 적중

조선후기 수취제도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한 것은?

- ① 과세의 기준이 토지에서 가호(家戶)로 바뀌었다.
- ② 대동법에 의한 조세의 급납화로 상품화폐경제의 발달이 촉진되었다.
- ③ 균역법으로 양반의 대부분이 군포를 납부함으로써 농민들의 부담이 감소하였다.
- ④ 영정법을 통해 고정하였으나 재정수입의 감소로 다시 공법을 실시하였다.

14. 조선 후기의 가족 제도와 사회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태어난 순서대로 족보에 기재하였다.
- ② 동성마을이 많아지고 부계 중심의 족보가 편찬되었다.
- ③ 아들이 없으면 양자를 들이는 대신에 딸과 외손자가 제사를 지냈다.
- ④ 혼인은 친영제에서 남귀여가혼으로 변화되었고, 재산은 균등하게 상속되었다.

☞답②

조선 전기에는 반촌(班村)에는 동성(同姓)의 특정 성씨만이 아니라 친족, 처족, 외족의 동족으로 구성되어 다양한 성씨(이성잡거)가 거주하다가 18세기 이후에는 동성 촌락으로 변화되었다.

<오답연구> ① ③ 조선 전기 모습이다.

④ 조선 후기는 남귀여가혼에서 친영제로 변화되었고, 재산은 자녀 균분 상속에서 장자 중심으로 변화되었다.

■ 기출 Tip : 2010년 국가직 9급, 경북 교행 9급 등 다수

■ 2014년 국가직 대비 선우한국사 3월 동형모의고사

8회 8번 유사 적중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 족보가 제작되었을 시기의 사회 모습으로 옳은 것은?

- 자녀를 남녀 구분 없이 출생 순서에 따라 기재하였다.
- 재혼 여성의 경우 전 남편과 재혼한 남편을 모두 기록하였다.
- 외손도 친손과 같이 기재하였다.

- ① 출가한 여성에게도 재산이 균등하게 상속되었다.
- ② 양반들이 문중을 중심으로 동성 촌락을 형성하였다.
- ③ 남자들에게만 조상의 제사를 지내는 의무가 주어졌다.
- ④ 아들이 없는 집안에서는 양자를 들이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15. 다음 역사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일찍이 세조께서, “우리 동방에는 비록 여러 역사서가 있으나 장편으로 되어 귀찮으로 삼을 만한 것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고, 관리들에게 명하여 편찬하게 하셨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주상께서 그 뜻을 이어받아 서거정 등에게 편찬을 명하였습니다. (중략) 이 책을 지음에 명분과 인륜을 중시하고 절의를 숭상하여, 난신을 성토하고 간사한 자를 비난하는 것을 더욱 엄격히 하였습니다.

- ① 고조선부터 고려 말까지 역사를 정리하였다.
- ② 세가, 지, 열전 등으로 구성되었다.
- ③ 고대사 연구의 시야를 만주지방까지 확대하여 한반도 중심의 협소한 사관을 극복하는 데 힘썼다.
- ④ 중국 및 일본의 자료를 참고하여 민족사 인식의 폭을 넓히는데 이바지하였다.

☞답 ①

제시문의 역사서는 「동국통감」(세조~성종)으로 고조선에서 고려까지의 최초의 통사이다.

<오답연구>

- ② 「동국통감」은 편년체이다. 세가, 지, 열전 등으로 구성된 책은 기전체이다.
- ③ 조선후기의 역사서인 유득공의 「발해고」나 이종휘의 「동사」에 대한 내용이다.
- ④ 조선 후기 한치윤의 「해동역사」이다.

■ 2014년 선우한국사 국가직 대비 3월 동형모의고사

1회 13번 문제적중

다음 역사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삼가 삼국 이하의 여러 역사를 뽑고 중국사를 채집하였으며, 편년체를 취하여 사실을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범례는 모두 「자치통감」에 의거하고 「자치통감강목」의 철삭한 취지에 따라 중요한 것을 보존하는 데 힘썼습니다. 삼국이 병립하였을 때는 삼국기(三國紀), 신라가 통일하였을 때는 신라기, 고려 때는 고려기, 삼한(三韓) 이전은 외기(外紀)라 하였습니다. 1400년 동안 국가의 흥망과 임금의 잘잘못을 비롯하여 정치의 성쇠를 모두 거둬서 기록하였습니다.

- ① 「구삼국사」를 기본으로 유교적 합리사관에 기초하여 세가, 지, 열전 등으로 구성되었다.
- ② 단군에서 고려까지의 역사를 통사 형식으로 편찬되었다.
- ③ 고려사절요의 편찬 체제를 정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
- ④ 사람들이 추구하는 왕도정치에 대한 뿌리찾기의 시도를 보여 주었다.

6